9괘 - 풍천소축 - 111211

전체 : 소휵의 길은 형통하다. 뺵뺵한 구름이 아직 비를 내리지 않은 채 우리 서쪽 교외에 이르는 상이다.

1효 : 처음에 양이 오니, 자신의 길을 회복하는 상이다. 어찌 그것이 허물이겠는가? 길하리라.

2효 : 양이 두번째에 오니, 강제로 코를 꿰어 끌어서 회복하는 상이다. 길하리라

3효 : 양이 세 번째에 오니, 수레가 바퀴살을 벗기는 상이다. 지아비와 처가 서로 반목한다.

4효 : 음이 네번째에 오니, 믿음을 가지고서 피를 덜어 마시고 걱정과 두려움을 내치면 허물이 없으리라.

5효 : 양이 다섯 번째에 오니, 믿음을 가지고 매여 있구나. 그 이웃함으로 인해 부유해지리라.

6효 : 극상의 자리에까지 양이 오니, 이미 비가 내렸고 이미 (비가) 멈춘 상이다. 숭상받을 만한 덕으로 부녀자에게 올라타려 해도, (부녀자가) 정하니 위태롭다. 달이 거의 보름에 찼으니 군자가 정하려 들면 흉하리라.